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2. 10. 21(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고	스마트시티과	
담 당	괴장 정윤희, 스마트전략팀장 구병길, 담당 김종원·이미영(032-453-7464)	

인천, 퀘벡을 만나다…2022 IFEZ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25일 개최 두 도시 간 스마트시티 최신기술 · 혁신사례 공유 · 스타트업 육성 협력 등 논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2 IFEZ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25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인천경제청이 주최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퀘벡주정부 대표부, 한 국스탠포드센터,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속 기업들이 함께하는 이번 심포 지엄은 '인천, 퀘벡을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인천과 퀘벡의 스마트시티 최신기술·정책 및 스타트업이 이끄는 혁신과 협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 로 마련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5회째로 매년 주목받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 화두를 주제로 선정하고 양국의 전문가와 혁신가들의 발 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국제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연구 혁신의 중심지인 캐나다 퀘벡의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스마트시티와 스 타트업 관련 다양한 혁신 사례를 들어보고 인천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 전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심포지엄은 캐나다 경제혁신부의 레미 퀴리온 최고 과학자의 축사를 포함해 퀘벡투자공사(Investment Quebec International)의 마리 이브 장부대표, 現 국토교통부 국가스마트도시 위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전

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 캐나다의 혁신 관련 국가연구기관인 미탁스(Mitacs) 제시 빈센트 허스코비치 부사장의 기조연설로 구성된 1부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2부로 진행된다.

- 세부적으로, 세션 1에서는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원 문경순 원장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양자 생태계 조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양자컴퓨팅,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중심으로 양국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이끌 최신기술을 조명한다. 세션 2에서는 퀘벡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센테크(Centech)의 리차드 체르니에 대표와 신한스퀘어브릿지의 이지선 대표가 인천과 퀘벡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 세션 3에서는 인천과 퀘벡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스마트팜, 스마트조명제어, 기후환경기술, 통합물류 분야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스 타트업의 사업 모델 소개를 진행한다.
- 특히, 인천경제청은 이번 행사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센테크(Centech)와 양국 스타트업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혁신기술 스타트 업들의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가 바로 도전적인 아이디어와 스마트한 기술로 도시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 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과 퀘벡의 혁신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 고 스마트시티와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 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IFEZ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행사 홈페이지(http://www.ifez-scs.kr)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